
문화적 차원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 성 준*

본 연구는 국가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 수 차이가 상당 부분 국가문화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 대규모 선행 비교문화 연구, 즉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eert Hofstede)의 문화차원 연구, 글로브 프로젝트(GLOBE Project), 그리고 샬롬 슈워츠(Shalom H. Schwartz)의 문화적 가치 성향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국가별 문화적 차원 점수와 국가별 100만 명 당 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권력거리 문화차원은 확진자 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가문화, 문화적 차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 글로브 프로젝트, 샬롬 슈워츠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1. 서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통계 수치가 속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이들 수치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국가 혹은 지역별로 사망자 혹은 확진자 수가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거론된 요인 가운데 하나는 단연코 각국 정부의 방역 대책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또는 독일 등과 같이 코로나 확산 초기에 빠르고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 격리한 국가는 사망자 혹은 확진자 수를 억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다른 사회경제적 혹은 자연과학적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21일 BBC Future에 실린 기사, “코로나 19: 왜 일부 인종이 더 취약하게 나타날까(Coronavirus: Why some racial groups are more vulnerable)?”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서구 다문화 국가에서 유색 인종의 코로나 사망자 혹은 확진자 수가 백인보다 훨씬 많다는 점에 주목, 인종 간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예. 소득 및 교육 불평등 또는 주거 환경 차이 등)이 코로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물론, 국가 및 지역 간 기후 차이(Ficetola & Rubolini, 2020) 혹은 인종 또는 민족 간 유전적 차이(Khunti, Singh, Pareek & Hanif, 2020) 등과 같은 각종 자연과학적 변수도 의미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노년층이 코로나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별 인구구조의 차이도 특히 사망자 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Messner, 2020). 한편, 혹자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동기 혹은 사망자와 확진자 수 집계 방법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관련 통계 수치의 신빙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국가 간 수치 비교 시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특히, 국내 언론에서 일본의 코로나 통계 수치는 수많은 의혹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 가운데 본 연구는 특히 문화적 요인에 주목, 국가별 코로나 확진자 수 차이가 국가문화 차이에 기인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실증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관련 논란과 연계되어 종종 언급된 바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코로나 확산 속도가 미국 또는 유럽 국가보다 낮은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후자와 달리 전자의 경우 대다수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이며, 그 이면에는 단순히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연대감 혹은 공동체 의식에서 출발, 마스크 착용을 통해 ‘남’에게 불필요한 불안감 또는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예. Cheng, Lam & Leung, 2020). 물론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 특유의 마스크 착용 규범을 오로지 문화적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예. 높은 미세먼지 농도 또는 미적 감각의 차이 등).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히 “그럴듯한” 가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시각의 해석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 국가가 미국 또는 서유럽 국가보다 코로나 전파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코로나 확산 초기에 각국 정부가 훨씬 직접적이고 강력한,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 즉, 후자의 경우 쉽게 취하기 어려운 - 집단적 대책을 취함으로써 코로나 유행을 강제적으로 억누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예. Gelfand et al., 2020). 물론, 이러한 주장은 문화적 차원의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동아시아 국가의 권위주의적 문화는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 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중요한 사회문화적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학계 및 언론계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앞으로 자국 이기주의 및 권위주의가 득세하고 세계화 및 민주주의가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진단은 결코 방금 위에서 언급된 주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국가별 코로나 확산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변수 가운데 국가문화

차이는 분명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비교적 규모가 크고 학계에서 이미 그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선행 비교문화 연구, 즉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eert Hofstede)와 글로브 프로젝트(GLOBE Project)의 문화차원(cultural dimensions) 그리고 샬롬 슈워츠(Shalom H. Schwartz)의 가치 성향(value orientations) 연구가 제시하는 국가별 문화차원 점수와 국가별 100만 명 당 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통계적으로 확인,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사회과학 분야에서 코로나 관련 연구의 움직임은 주로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배경지식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요인을 실증적 차원에서 규명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선행 비교문화 연구의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된 후 국가문화가 코로나 확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관련 선행연구 소개와 함께 이루어진다. 이어지는 3장에서는 연구방법론이 언급되고, 이후 4장에서는 실제 분석 결과가 소개된다. 5장에서는 연구 결과에 관한 토론 및 해석이 이루어진 후,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연구 방향 등이 논의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비교문화 연구

본 연구에서 국가문화 차이는 전 세계 각국의 문화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측정된 세 가지 대표적인 선행 비교문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측정된다. 이들 연구는 모두 보편주의적 접근 방법(etic approach), 즉 외부자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문화 간 객관적인 비교를 통해 개별 문화의 내용, 즉 한 사회 내 널리 공유되는 가치체계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여기서 문화는 마치 항상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존재 여부를 의식하기 힘든 ‘공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 사회 내 이미 널리 공유되는 가치체계에 익숙한 내부자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항상 다른 문화와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세 가지 선행 비교문화 연구는 모두 이론적 차원에서 Kluckhohn & Strodtbeck(1961)이 제시한 가치정향이론(values orientation theory)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가치정향이론은 1) 인간의 본성(선 또는 악), 2) 인간과 자연 간 관계(지배, 복종 또는 조화), 3) 인간관계(개인 또는 집단), 4) 인간의 활동 양식(동적 또는 정적), 5) 시간(과거, 현재 또는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6) 공간(사적 또는 공적) 등과 관련하여 모든 사회가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총 6가지 ‘딜레마’ 혹은 ‘문제’를 제시한 후, 각각의 사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외부자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이들 사회 내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체계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회는 3) 인간관계 문제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질서 간 갈등을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각각의 사회는 이 문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질서를, 혹은 반대로 공동체의 질서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 수 있다. 가치정향이론을 따르면 이러한 문제 해결 방식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가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상대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아래 소개되는 세 가지 선행 비교문화 연구는 이러한 딜레마, 혹은 가치 차원의 문제를 귀납적 혹은 연역적 방법으로 도출한 후 전 세계 각국에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체계를 정량적으로 측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세 가지 연구는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몇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이들 연구는 즉 1) 과연 무엇을 모든 사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로 간주할 것인가 그리고 2) 각각의 사회 내 존재하는 가치체계를 과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며, 따라서 국가문화 차이를 결과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헤이르트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 연구

네덜란드의 사회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더는 연역적으로 도출된 6개의 - 초기에는 4개, 이후 6개로 확장 - 문화차원을 바탕으로 총 76개국의 문화를 비교한 바 있다(Hofstede, G., Hofstede & Minkov, 2010; Hofstede & Bond, 1988). 이들 문화차원의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헤이르트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

문화차원	설명
권력거리 (power distance)	사회 또는 조직 내 낮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용인하는 정도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자아상을 ‘나’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경우 개인주의가 두드러지지만, ‘우리’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경우 집단주의가 두드러짐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모호하거나 혹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회 구성원이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피하고자 하는 정도
남성성 대 여성성 (masculinity vs. femininity)	한 사회가 성취, 영웅주의, 강한 자기주장, 물질적 보상 등을 중시하는 경우 남성성이 두드러지지만, 협력, 겸손, 배려, 삶의 질 등을 중시하는 경우 여성성이 두드러짐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long-term vs. short-term orientation)	한 사회가 미래의 번영을 중시하는 경우 장기지향성이 두드러지지만, 과거의 전통 혹은 현재의 사회적 의무 이행 등을 중시하는 경우 단기지향성이 두드러짐
응석 대 절제 (indulgence vs. restraint)	한 사회가 인생을 즐기고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용인하는 경우 응석이 두드러지지만,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억제하는 경우 절제가 두드러짐

모든 국가는 각각의 문화차원마다 1~100점의 점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권력거리는 60점, 개인주의는 18점, 남성성은 39점, 불확실성 회피는 85점, 장기지향성은 100점, 응석은 29점의 점수를 가진다. 문화차원의 측정은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약 88,000명의 기업체 종사자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으며 마지막으로 개발된 설문지 VSM(Values Survey Module) 2013은 설문 참여자가 속한 사회 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묻는 약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개별 문화차원 당 약 4개의 문항). 예를 들어, 권력거리의 경우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부하 직원(또는 학생)은 상사(또는 선생)를 반박하는 데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니까?” 등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2.3 글로브 프로젝트

전 세계 약 150여 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글로브 프로젝트는 호프스테더의 연구 데이터를 재검토, 6개의 문화차원을 9개로 확장한 후, 이를 바탕으로 총 62개국의 문화를 측정, 비교했다(House, Hanges, Javidan, Dorfman & Gupta, 2004). 더불어, 호프스테더와 달리 글로브 프로젝트는 각각의 문화차원을 ‘실제(practice; as is)’와 ‘지향(values; should be)’, 즉 현재 사회 내 실제 통용되고 있는 가치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구분하여 측정했다. 따라서 글로브 프로젝트의 모든 문화차원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점수, 즉 실제 점수와 지향 점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들 두 가지 점수를 모두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 문화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글로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

문화차원	설명
성과지향주의 (performance orientation)	한 사회가 성과 향상 및 탁월함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정도 (글로브 프로젝트의 새로운 문화차원)
단호함(assertivenes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호하고 대립적이며 공격적인 정도 (호프스테더의 남성성 대 여성성 문화차원에서 도출)
미래지향성 (future orientation)	현재의 만족을 억누르고 계획 및 투자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 행동에 몰입하는 정도(호프스테더의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문화차원과 비슷)

인간지향주의 (humane orientation)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평하고, 이타적이며, 관대하고, 배려심을 보이며, 친절함 정도(글로브 프로젝트의 새로운 문화차원)
제도적 집단주의 (institutional collectivism)	한 사회가 자원의 집단적 분배 및 집단 행동을 독려하고 보상하는 정도(호프스테더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에서 도출)
내집단 집단주의 (in-group collectivism)	자신이 속한 조직 및 가족에 높은 자부심을 느끼고, 충성을 다하며, 강한 응집성을 보이는 정도(호프스테더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에서 도출)
성평등주의 (gender egalitarianism)	한 사회가 성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도(호프스테더의 남성성 대 여성성 문화차원에서 도출)
권력거리 (power distance)	호프스테더의 권력거리 문화차원과 동일
불확실성 회피 (uncertainty avoidance)	호프스테더의 불확실성 회피 문화차원과 동일

글로브 프로젝트에서 문화차원은 총 78개의 7점 척도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실제’ 가치와 ‘지향’ 가치 각각 39문항), 전 세계 약 17,000명의 중간관리자가 설문문에 참여했다.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설문지, 즉 조직 수준의 문항을 포함하는 알파, 그리고 사회 혹은 국가 수준의 문항을 포함하는 베타 설문지가 구성, 배포되었으며, 호프스테더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화차원은 약 4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예를 들어, 권력거리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주로 자신의 능력과 사회 기여도/자신의 직위에 따른 권위에 기초한다.” 측정 결과, 알파와 베타 설문지의 결괏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후 실제 국가별 국가차원 점수는 이들 결괏값을 합친 값으로 계산되었다.

2.4 샬롬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 연구

이스라엘의 사회심리학자 샬롬 슈워츠는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된 호프스테더 및 글로브 프로젝트 등과 달리 귀납적으로 도출된 총 7개의 문화적 가

치 성향(cultural value orientation)을 바탕으로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약 75,000명의 학교 교사 또는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약 80여 개 국가의 문화적 가치 성향을 측정한다(Schwartz, 2006). 슈워츠는 먼저 56개 가치 항목(value items)을 귀납적 방법으로 추출한 후(표 3의 가치 항목 참조),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 가치 항목의 중요도를 8점 척도로 측정하고(예. 당신의 인생에서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중요하지 않다) 이후 통계적으로 차원 축소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의 문화적 가치 성향을 도출하였다. 이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샬롬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

문화적 가치 성향		설명
자율성 대 배태성 (개인과 집단 간 관계)	지적 자율성 (intellectual autonomy)	자기 생각과 지적 방향성을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독려(가치 항목의 예: 호기심, 창의성, 포용력 등)
	정서적 자율성 (affective autonomy)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독려(가치 항목의 예: 쾌락, 흥미로운 삶, 다채로운 삶 등)
	배태성 (embeddedness)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며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는 소속감 등에서 찾는 것을 독려(가치 항목의 예: 사회적 질서, 전통에 대한 존경, 안전, 복종, 지혜 등)
평등주의 대 계급주의 (사회가 유지되는 방법)	평등주의 (egalitarianism)	서로를 비슷한 이해관계를 가진 동등한 존재로 간주하며 협동과 복지 등을 강조(가치 항목의 예: 평등, 사회적 정의, 책임, 도움, 정직 등)
	계급주의 (hierarchy)	수직적 계층을 통해 주어진 지위 및 소임을 증시하며 불평등한 권력, 역할 또는 자원 등의 분배를 당연시(가치 항목의 예: 사회적 권력, 권위, 겸손함, 부 등)
화합 대 지배 (개인과 자연 또는 사회적 환경 관계의 성격)	화합(harmony)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가치 항목의 예: 세계 평화, 자연과의 화합, 환경 보호 등)
	지배(mastery)	집단 혹은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연 또는 사회를 지배하고 이끌며 변화를 추구(가치 항목의 예: 야망, 성공, 대담함, 능력 등)

호프스테더의 연구 그리고 글로브 프로젝트에서 서로 쌍으로 맺어진 문화 차원은 모두 하나의 점수로 측정되지만, 슈워츠 연구에서 이는 구분되어 측정되며, 따라서 각각 다른 값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슈워츠의 연구가 귀납적 방법을 통해 문화적 가치 성향을 도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평등주의 대 계급주의와 비슷한 개념인 권력거리 문화차원은 하나의 점수를 가지지만 슈워츠의 연구에서는 평등주의와 계급주의로 구분되어 두 개의 점수를 가진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평등주의는 4.42점, 계급주의는 2.9점의 점수를 가진다.

2.5 국가문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정도 간 관계

그렇다면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된 여러 문화차원 혹은 문화적 가치 성향은 과연 코로나 확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현재 대유행 단계로 접어든 시점에서 아직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국가별 코로나 확산 차이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본 소수의 선행연구 가운데 특히 문화적 변수가 포함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연구 가운데 하나로 아마도 Dheer, Egri & Treviño (2020)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호프스테더와 슈워츠의 문화 점수를 사용하여 국가문화 차이가 100만 명당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2020년 5월 17일 자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선형 모델(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로는 국가별 평균 연령, 인구밀집도, 1인당 GDP(구매력 평가 기준), 세계은행의 정부 효과성 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시간 변수, 즉 첫 확진자 발견 시점 이후 확진자 수 증가율이 1차 수준에서 독립변수로 투입되었다. 더불어,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 점수는 7개 성향의 개별 점수가 아닌 쌍으로 짝지어져 차원 축소된 3개 성향의 점수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에서는 개인주의와 응석, 그리고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에서는 자율성과 평등주의가 코로나 확산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권력거리는 음의 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로 Travaglio & Moon(2020)은 시민의 준법정신과 협조가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미국(n=597), 이탈리아(n=660), 한국(n=693)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2020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측정 변수로는 1)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2) 코로나 감염 시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 자각 정도, 3)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4)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 정도, 5) 코로나 감염 시 지인 혹은 당국에 이를 보고하려는 의도, 6)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 7) 정치적 성향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는 총 네 가지, 즉 1) 수평적 개인주의, 2) 수평적 집단주의, 3) 수직적 개인주의 그리고 4) 수직적 집단주의로 나누어졌는데 이는 호프스테더의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을 섞은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평적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반면, 수평적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 간 관계가 중시되고 권위의 중요성은 무시된다. 수직적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이 특별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시되며, 마지막으로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인간관계 및 외집단과의 경쟁이 중시된다.

연구 결과, 이들 세 국가의 문화적 가치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였으나¹⁾ 이들 4개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은 상당 부분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집단주의는 미국을 제외하고 코로나 감염 시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 자각 정도와 강한 상관관계를, 그리고 수평적 집단주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세 번째로 Messner(2020)는 각종 제도적, 사회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문화적 변수가 코로나 피검사자나 확진자 수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문화적 변수로는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 점수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이들 변수는 약 85% 수준의 분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문화적 변수의 경우 예상과 달리 개인주의적 사회는 낮은 코로나 확산세를,

1) 한국의 경우 수직적 집단주의, 이탈리아의 경우 수평적 집단주의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높은 개인주의 성향을 보인다.

집단주의적 사회는 높은 확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집단주의적 사회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권력거리는 일반적인 예상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세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권력거리가 낮은 사회의 경우 사람들이 정부 지침에 비판적인 편이며, 동시에 가능한 한 자신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석도 코로나 확산세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Gelfand et al.(2002)는 한 사회 내 문화적 동질화(cultural tightness)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부 효율성이 높을수록 코로나 확산이 더딜 것으로 예측,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2020년 4월 4일까지 국가별 코로나 확산세 및 사망률로 측정되었으며 정부 효율성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정부 효과성 지수(government efficiency index) 그리고 문화적 동질화 정도는 연구자 자신의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총 57개국 결과치로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두 변수 모두 예상한 바와 같이 코로나 확산세 및 사망률을 억누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로운 점은 정부 효율성이 낮은 경우 문화적 동질화 정도는 오히려 반대의 효과, 즉 높은 확산세 및 사망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러 문화차원 가운데 코로나 사태 등과 같은 유행병의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종 지목된 문화차원으로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Fincher, Thorhill, Murray & Schaller, 2008) 그리고 권력거리(Borg, Camilleri & Waisfisz, 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서로 상충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소개된 Travaglino & Moon(2020)의 연구 결과는 수직적 집단주의가 코로나 확산을 막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집단적 차원에서 낙인감을 회피하고자 하는 암묵적 규범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앞으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서로 다른 두 시점에 수집된 국가별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가 투입되었다(2020년 4월 30일과 6월 7일). 몇몇 선행연구는 이를 확진자 혹은 사망자 성장세 등으로 측정했으나 본 연구자는 국가별 집계 방법에 따른 오차가 확진자 수보다 사망자 수에서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더불어 이미 유행이 상당 부분 무르익은 단계에서 성장세보다 누적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현재 국가별 코로나 전과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자 수의 경우 전년 대비 올해 사망자 수 비율 등과 같은 수치는 단순 코로나 사망자 수가 가지는 오류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료 수집 단계에서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향후 연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측정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진자 관련 통계 수치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단연코 해당 수치가 실제 감염자 수보다 훨씬 작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국가별 피검사자 수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적 피검사자 수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된 각종 문화차원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100만 명당 누적 피검사자 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했지만, 동시에 참고 차원에서 이를 결과변수로도 투입, 누적 확진자 수가 투입된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보았다. 국가별 확진자나 피검사자 수는 “Worldomete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시점에 걸쳐 수집되었다(<https://www.worldometers.info/coronavirus/>).

독립변수로는 위에서 소개된 각종 문화차원 또는 문화적 가치 성향이 투입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차원 측정치를 활용, 각각의 문화차원이 누적 확진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분석적 차원에서 비교, 만약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호프스테더, 글로브 프로젝트 그리고 슈워츠의 문화차원 또는 문화적 가치 성향 점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으며, 이후 모형 및 계수의 유의성 비교가 이루어졌다.

호프스테더의 6개 문화차원 점수는 호프스테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수할 수 있었으며(<https://geerthofstede.com/>) 총 108개 국가 및 지역의 점수를 포함한다. 글로브 프로젝트 문화차원 점수는 글로브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었으며(<https://globeproject.com/>) 총 62개국의 점수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은 Schwartz(2008)에서 추출되었으며, 총 80개 국가 및 지역의 점수를 포함한다. 하지만 실제 분석 과정에서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의 점수가 모두 분석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슈워츠는 동독과 서독의 문화적 가치 성향 점수를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이 경우 동독과 서독은 어쩔 수 없이 분석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국가 수는 이들 세 가지 선행 비교문화 연구에 포함된 국가 수보다 약간 적다.

4. 분석 결과

먼저, 호프스테더의 6개 문화차원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참고로 괄호 밖 숫자는 2020년 6월 7일 확진자 수 그리고 괄호 안 숫자는 2020년 4월 30일 확진자 수 결과를 나타낸다. VIF값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누적 피검사자 수와 문화차원 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6월 7일 데이터의 경우 권력거리($r=-.400, p<.01$), 개인주의($r=.504, p<.01$), 장기지향성($r=.192, p<.1$), 응석($r=.177, p<.1$) 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2020년 4월 30일 데이터의 경우 권력거리($r=-.451, p<.01$), 개인주의($r=.451, p<.01$)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기지향성을 제외하고 표 4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 점수는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보다 피검사자 수를 더욱 잘 예측한다. 예를 들어, 독립변수로 모든 문화차원 그리고 종속변수로 6월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투입된 회귀식의 수정된 R2 값은 .062, 그리고 같은

<표 4>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과 누적 확진자 수(표준화 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검사 수	.460** (.571**)							.443** (.456**)
권력거리		-.212 [†] (-.357**)						.038 (.025)
개인주의			.281* (.461**)					.056 (.251 [†])
남성성				-.092 (-.021)				-.053 (.081)
불확실성 회피					-.054 (-.060)			-.047 (-.005)
장기 지향성						.129 (.174 [†])		.037 (.097)
응석							.249* (.243*)	.201 (.156)
수정된 R ²	.204	.031	.066	-.006	-.011	.006	.052	.188
F	27.876**	3.241 [†]	5.913*	.586	.205	1.511	5.968*	3.053**
N	105	71	71	71	71	91	92	63

[†] p<.1, * p<.05, ** p<.01

조건에서 종속변수로 6월 기준 누적 피검사자 수가 투입된 회귀식의 수정된 R2 값은 .228로 꽤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한 후 이를 막기 위해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매우 당연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차원이 확진자 수보다 피검사자 수를 더욱 잘 예측한다는 것은 후자보다 전자가 훨씬 더 많은 외생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거리와 개인주의 그리고 응석 문화차원은 누적 확진자 및 피검사자 수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유행병 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화차원으로 종종 언급된 권력거리와 개인주의의 경우 코로나 확산과 각각 뚜렷한 음의 관계 그리고 양의 관계를 보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 변수의 효과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권력거리의 베타 값과 통계적 유의성은 모두 6월보다

4월 데이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아마도 코로나 확산이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문화적 변수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누적 피검사자 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되는 경우 문화차원의 영향력은 많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모델 8).

<표 5> 글로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과 누적 확진자 수(표준화 계수, 실제 값 기준)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검사 수	.46** (.57**)										.55** (.66)
단호함		.09 (.20)									.16 (.05)
제도적 집단주의			.22 (.15)								.10 (-.19)
내집단 집단주의				-.16 (-.36**)							.10 (-.13)
미래 지향성					.22 (.37**)						.16 (.35 [†])
성 평등주의						.16 (.11)					-.05 (.06)
인간 지향주의							.08 (-.15)				.13 (.04)
성과 지향주의								-.02 (.20)			-.25 (.05)
권력거리									-.11 (-.09)		-.01 (.19)
불확실성 회피										.19 (.38**)	.07 (-.03)
수정된 R ²	.20	-.01	.03	.01	.03	.01	-.01	-.02	-.01	.02	.24
F	27.88**	.42	2.53	1.28	2.50	1.37	.28	.017	.57	1.82	2.55*
N	105	51	51	51	51	51	51	51	51	51	50

[†] p<.1, * p<.05, ** p<.01

이어서 글로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그리고 표 6와 같다. 분석은 위 호프스테더 문화차원이 투입된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값과 지향 값이 모두 투입되었다(표 5는 실제 값, 표 6은 지향 값).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표 6> 글로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과 누적 확진자 수(표준화 계수, 지향 값 기준)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검사 수	.46** (.57**)										.62** (.56**)
단호함		-.10 (-.11)									.04 (.13)
제도적 집단주의			.11 (.09)								.32* (.34**)
내집단 집단주의				-.05 (.01)							-.07 (.06)
미래 지향성					.03 (-.18)						.17 (.09)
성 평등주의						-.08 (.36**)					-.40* (.00)
인간 지향주의							.11 (.38**)				.08 (.27*)
성과 지향주의								.03 (.07)			.01 (-.15)
권력거리									.12 (-.19)		.05 (.00)
불확실성 회피										-.23 (-.55**)	-.34* (-.32*)
수정된 R ²	.20	-.01	-.01	-.02	-.02	-.01	-.01	-.02	-.01	.03	.40
F	2788**	.49	.63	.13	.05	.33	.62	.04	.75	2.71	431**
N	105	51	51	51	51	51	51	51	51	51	50

† p<.1, * p<.05, ** p<.01

6월 누적 피검사자 수는 제도적 집단주의($r=.302, p<.5$), 내집단 집단주의($r=-.316, p<.5$), 성평등주의($r=.274, p<.1$)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r=.314, p<.5$)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실제 값 기준). 그리고 4월 누적 피검사자 수는 제도적 집단주의($r=.266, p<.1$), 내집단 집단주의($r=-.332, p<.5$)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r=.344, p<.5$)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실제 값 기준).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이 투입된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도 전반적으로 누적 확진자 수보다 누적 피검사자 수를 더욱 잘 예측한다.

글로벌 프로젝트는 호프스테더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차원을 제도적 집단주의와 내집단 집단주의로 구분한다. 따라서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이 투입된 회귀분석에서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 분석 결과는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값 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제도적 집단주의와 내집단 집단주의의 베타 계수 값은 각각 양수와 음수 값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4월 데이터 기준 내집단 집단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누적 확진자 기준). 다시 말해, 제도적 집단주의는 코로나 확산을 오히려 촉진, 내집단 집단주의는 이를 억제하는 문화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자원의 공평한 재분배를 강조하는 제도적 집단주의보다 자신의 속한 가족 혹은 집단 등에 대한 높은 자부심 및 응집성 등을 강조하는 내집단 집단주의가 호프스테더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과 개념적 차원에서 훨씬 가까운 편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프스테더의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과 글로벌 프로젝트의 제도적 집단주의 및 내집단 집단주의 간 상관계수는 각각 .285($p=.064, N=43$) 그리고 $-.694(p=.000, N=43)$ 로서 내집단 집단주의가 상대적으로 더 유의미한 수치를 보인다.

글로벌 프로젝트의 미래지향성,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등은 개념적 차원에서 호프스테더의 문화차원과 같으며, 따라서 좋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권력거리의 경우 호프스테더 문화차원 분석 결과에서는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글로브 프로젝트 문화차원 분석 결과에서는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다. 미래지향성의 경우 양쪽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실제 값 기준). 반면, 불확실성 회피의 경우 호프스테더 문화차원 분석 결과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았지만, 글로브 프로젝트 문화차원 분석에서는 실제 값의 경우 뚜렷한 양의 관계를, 그리고 지향 값의 경우 뚜렷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불확실성 회피 문화차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한 검사를 촉진,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각각의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 차이, 또는 두 연구의 측정 도구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특히 호프스테더의 불확실성 회피 점수는 1970년도에 전 세계 IBM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측정되었으며 1)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불안감을 느끼는지, 2)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3) 직장 내 규정이 예외 없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지 등을 묻는 세 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몇몇 연구자는 이러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문제삼은 바 있다(Schmitz & Weber, 2014).

마지막으로 글로브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특히 지향 값이 투입된 경우 실제 값과 달리 성평등주의와 인간지향주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이다. 특히, 인간지향주의 문화차원의 경우 4월 누적 감염자 수 데이터 기준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마도 글로브 프로젝트가 특정 가치체계(예. 남성성 대 여성성)를 여러 문화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표 7 참조).

이어서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배대성 성향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성(지적, 정서적)과 배대성 성향이 분리되어 회귀식에 투입되었다(모형 9와 10). 더불어, 6월 누적 피검사자 수는 지배 성향을 제외한 모든 문화적 가치 성향, 즉 지적 자

<표 7> 슈위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과 누적 확진자 수(표준화 계수)

변수	1	2	3	4	5	6	7	8	9	10
검사 수	.46** (.57**)								.49** (.37**)	.46** (.36**)
지적 자율성		.36** (.55**)							.22 (.24)	
정서적 자율성			.30* (.48**)						-.05 (.15)	
배태성				-.43** (-.59**)						-.20 (-.34**)
평등주의					.54** (.62**)				.37** (.40**)	.36** (.36**)
계급주의						-.25* (-.42**)			.24 [†] (.13)	.23 [†] (.09)
화합							.12 (.26*)		-.17 (-.16)	-.16 (-.16)
지배								-.09 (-.11)	-.12 (-.11)	-.16 (-.13)
수정된 R ²	.20	.12	.08	.17	.28	.05	.00	-.01	.42	.43
F	27.88**	10.12**	6.67*	15.38**	27.36**	4.54*	.99	.60	8.04**	9.54**
N	105	69	69	69	69	69	69	69	6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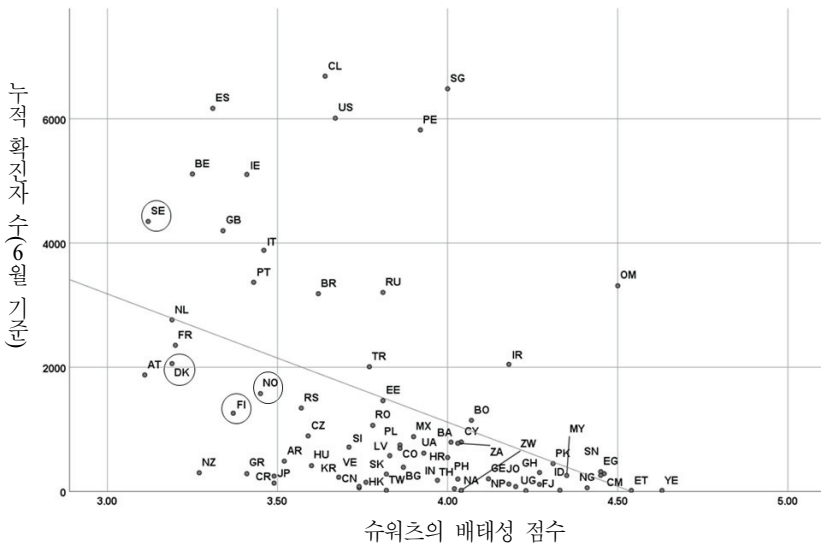
[†] p<.1, * p<.05, ** p<.01

율성($r=.43$, $p<.01$), 정서적 자율성($r=.46$, $p<.01$), 배태성($r=-.54$, $p<.01$), 평등주의($r=.46$, $p<.01$), 계급주의($r=-.48$, $p<.01$) 그리고 화합($r=.28$, $p<.05$)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4월 누적 피검사자 수도 마찬가지로 지배를 제외한 모든 문화적 가치 성향, 즉 지적 자율성($r=.45$, $p<.01$), 정서적 자율성($r=.41$, $p<.01$), 배태성($r=-.53$, $p<.01$), 평등주의($r=.42$, $p<.01$), 계급주의($r=-.54$, $p<.01$) 그리고 화합($r=.35$, $p<.01$) 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슈위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도 마찬가지로 누적 확진자 수보다 누적 피검사자 수를 더욱 잘 예측하며, 시간의 흐름과 함께 회귀식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슈워츠의 문화적 가치 성향은 호프스테더 그리고 글로브 프로젝트의 문화차원보다 훨씬 높은 설명력을 보인다. 몇몇 선행 비교문화 연구는 슈워츠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호프스테더 및 글로브 프로젝트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예. Ng, Lee & Soutar, 2007), 본 연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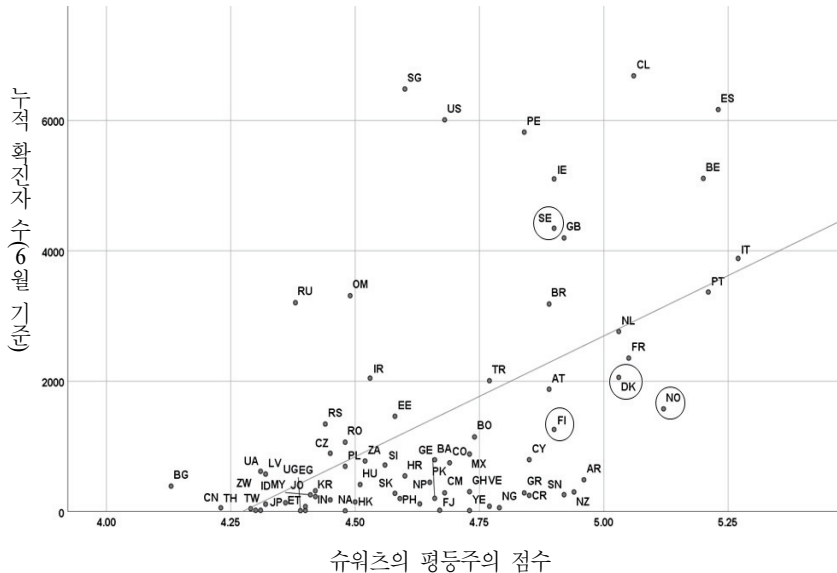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슈워츠의 자율성 대 배태성 차원은 자율성(개인주의)의 경우 누적 확진자 수와 양의 관계를, 그리고 배태성(집단주의)의 경우 음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위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거리와 유사한 평등주의(낮은 권력거리) 대 계급주의(높은 권력거리) 차원은 평등주의의 경우 양의 관계를, 그리고 계급주의의 경우 음의 관계를 보였다. 모든 변수가 투입된 회귀식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성보다 배태성이, 그리고 계급주의보다 평등주의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합 대 지배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논의를 산점도 형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1 그리고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슈워츠의 배태성 점수와 6월 기준 누적 확진자 간 산점도



비고) AR=Argentina, AU=Australia, AT=Austria, BE=Belgium, BO=Bolivia, BA=Bosnia, BR=Brazil, BG=Bulgaria, CM=Cameroon, CL=Chile, CN=China, CO=Colombia, CR=Costa Rica, CY=Cyprus, CZ=Czechia, DK=Denmark, EG=Egypt, EE=Estonia, ET=Ethiopia, FJ=Fiji, FI=Finland, FR=France, GE=Georgia, GH=Ghana, GB=United Kingdom, GR=Greece, HK=Hong Kong, HR=Croatia, HU=Hungary, IN=India, ID=Indonesia, IR=Iran, IE=Ireland, IT=Italy, JP=Japan, JO=Jordan, KR=South Korea, LV=Latvia, MY=Malaysia, MX=Mexico, NA=Nambia, NP=Nepal, NL=Netherland, NZ=New Zealand, NG=Nigeria, NO=Norway, OM=Oman, PK=Pakistan, PE=Peru, PH=Philippines, PL=Poland, PT=Portugal, RO=Romania, RS=Serbia, RU=Russia, SI=Slovenia, SN=Senegal, SG=Singapore, SK=Slovakia, ZA=South Africa, ES=Spain, SE=Sweden, TW=Taiwan, TH=Thailand, TR=Turkey, UG=Uganda, UA=Ukraine, US=United States, VE=Venezuela, YE=Yemen, ZM=Zambia ZW=Zimbabwe

<그림 2> 슈위츠의 평등주의 점수와 6월 기준 누적 확진자 간 산점도



비고) 국가 약어는 그림 1의 비고 참조

<표 8> 본 연구 결과의 정리

핵심 차원	호프스테더	글로브 프로젝트	슈워츠	본 연구 결과
권력 및 권한의 불평등한 분배	권력거리	권력거리 인간지향주의	평등주의 대 계급주의	뚜렷한 음의 관계 (글로브 제외)
개인(집단)에 대한 강조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제도적 집단주의 내집단 집단주의	자율성 대 배태성	뚜렷한 양의 관계
자연 및 사회 환경과의 관계	남성성 대 여성성	단호함 성평등주의 성과지향주의	화합 대 지배	관계없음
시간의 이용	장기지향성 대 단기지향성	미래지향성		약한 양의 관계
개인 및 사회적 통제 장치	불확실성 회피	불확실성 회피		불분명
기타	응석 대 절제			양의 관계(응석)

참고로, 그림 1과 2에서 동그라미가 쳐진 국가는 표본에 포함된 북유럽 국가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국가는 매우 뚜렷한 개인주의 성향을 보이며 동시에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억제하는 평등주의 점수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다수 비교문화 연구 결과에서 북유럽 국가는 문화적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는 편인데(예. 세계가치관조사)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분명 다른 북유럽 국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스웨덴의 경우 특히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이러한 차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지며, 따라서 향후 연구는 이를 효과적으로 측정, 회귀식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소개된 세 가지 선행 비교문화 연구는 개념적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문화차원 혹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개별 국가 내 가치 체계를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표 8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Nardon & Steers, 2006).

5. 토의 및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특히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그리고 권력거리 문화차원이 코로나 확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문화차원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 및 낮은 권력거리는 한 사회 내 코로나 확산을 촉진, 그리고 집단주의 및 높은 권력거리는 반대로 이를 억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반면, 나머지 문화차원은 이들 두 문화차원 만큼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비록 방법론적 측면에서 단지 서로 다른 두 시점만을 살펴본 관계로 그 결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화차원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혹자는 실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가별 확진자 수 통계자료가 실제 감염자 수와 상관없이 국가 간 코로나 확산 차이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면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동양권 국가는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비교적 성공했지만, 서양권 국가는,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아마도 문화적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권력거리 문화차원의 관점에서 전염병 차단에 필요한 검사 및 격리는 필연적으로 일정 부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권위주의적 가치 즉, 위로부터의 압력이 “당연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동양권 국가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문화차원의 관점에서 마스크 미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미준수 등과 같이 코로나 확산을 촉진하고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공동체 내 소속감 및 동질감 등이 특히 중요시되는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소위 “일탈 행위”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무언의 압력”을 통해 억제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설명은 이미 여러 다른 연구에서 직간접

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²⁾.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문화차원은 전염병 대유행 시 항상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일관된 행동 양식을 촉진한다는 절대적 관계 차원에서 이해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³⁾. 예를 들어, Messner(2020)는 코로나 사태 초기 데이터를 사용, 본 연구 결과와 달리 집단주의 국가에서 오히려 코로나 확산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이는 관계를 중시하는 집단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져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문화차원 점수는 단지 특정 사회 내 평균적인 가치체계의 내용을 나타낼 뿐, 예를 들어 집단주의적 가치가 실제로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하는지, 혹은 반대의 기제로 작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수, 혹은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의 경우 (비록, 논란이 있지만) 맨 처음 중국에서 발생되었다는 점, 그리고 언론 및 각종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그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시간 변수는 전체 연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방법론적 차원의 문제로서 이후 다양한 분석 기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통제변수로 누적 피검사자 수가 사용되었지만 향후 연구는 좀 더 정교한 모델 구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각국 정부의 대응은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측정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화차원 및 문화적 가치 성향 점수는 일종의 ‘종합’ 점수로서 위에서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전염병 대

2) 예를 들어, 사회적 태만(social loafing) 관련 연구 결과를 따르면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때 노력을 덜 하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적 태만은 집단주의적 가치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양권 국가에서 훨씬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예. Karau & Williams, 1993) 이 역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여기서 ‘절대적 관계 차원’이란 호프스테더가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를 ‘정신의 소프트웨어(software of the mind)’, 즉 인간 행동의 절대 통제 기저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행 시 개별 사회 구성원의 행동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며, 따라서 국가문화 또는 가치체계 차이를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할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⁴⁾.

마지막으로 향후 코로나 사태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적 가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 정부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정성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이미 본 연구의 한계점과 관련하여 논의된 바와 같이 향후 더욱더 많은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는 경우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좀 더 정교하게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예를 들어,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사용된 문항을 조합, 좀 더 정교화된 개념을 측정하는 방법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부패(corruption)’ 관련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여러 번 사용된 바 있다.

5) 예를 들어, 사회 전체의 공익 대 개인의 자유 간 해묵은 갈등이 코로나 사태 발발과 더불어 정부 공식 문서 또는 각종 미디어에서 어떻게 묘사되었으며 이후 점차 사회 담론으로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이나 실무적 관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한국과 스웨덴은 매우 흥미로운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Borg, M. A., Camilleri, L., & Waisfisz, B. (2012). Understanding the Epidemiology of MRSA in Europe: Do We Need to Think Outside the Box? *The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81*(4), 251-256.
- Cheng, K. K., Lam, T. H., & Leung, C. C. (2020). Wearing Face Masks in the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ltruism and Solidarity. *Lancet*, *Apr 16*. doi: 10.1016/S0140-6736(20)30918-1.
- Dheer, R. J. S., Egri, C., & Treviño, L. J. (2020). *COVID-19: A Cultural Analysis to Understand Variance in Infection Rate across Nations*. Article Submitted for Publication, Dept. Psychology, Department of Management, Eastern Michigan University.
- Ficetola, G. F., & Rubolini, D. (2020). *Climate Affects Global Patterns of COVID-19 Early Outbreak Dynamics*. Article Submitted for publication, Dept.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University of Milan.
- Fincher, C. L., Thornhill, R., Murray, D. R., & Schaller, M. (2008). Pathogen Prevalence Predicts Human Cross-Cultural Variability in Individualism/Collectivism.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275*, 1278-1285.
- Gelfand, M. J., Jackson, J. C., Pan, X., Nau, D., Dagher, M., Lange, P. V., & Chiu, C-Y. (2020). *The Importance of Cultural Tight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for Understanding COVID-19 Growth and Death Rates*. Article Submitted for Publication, Dept. Psychology,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Hofstede, G., Hofstede, G. J., & Minkov, M. (2010).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Revised and Expanded 3rd Edition. McGraw-Hill.
- Hofstede, G., & Bond, M. H. (1988). The Confucius Connection: From Cultural Roots to Economic Growth. *Organizational Dynamics*, *16*(4), 5-21.
- House, R. J., Hanges, P. J., Javidan, M., Dorfman, P. W., & Gupta, V. (eds).

- (2004). *Cultu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s: The GLOBE Study of 62 Societie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Karau, S. J., & Williams, K. D. (1993). Social Loafing: A Meta-Analytic Review and Theoretical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4), 681-706.
- Khunti, K., Singh, A. K., Pareek, M., & Hanif, W. (2020). Is Ethnicity Linked to Incidence or Outcomes of Covid-19? *British Medical Journal*, Apr 20. doi: 10.1136/bmj.m1548.
-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 New York: Harper Collins.
- Messner, W. (2020). *The Institutional and Cultural Context of Cross-National Variation in COVID-19 Outbreaks*. Article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Nardon, L., & Steers, R. M. (2009). The Culture Theory Jungle: Divergence and Convergence in Models of National Culture. In R. S. Bhagat & R. M. Steers (Eds.), *Cambridge Handbook of Culture, Organizations, and Work* (pp. 3-2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g, S. I., Lee, J. A., & Soutar, G. N. (2007). Are Hofstede's and Schwartz's Value Frameworks Congruent?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24, 164-180.
- Ro, C. (2020, April 21st). Coronavirus: Why Some Racial Groups are More Vulnerable. BBC.
- Schmitz, L., & Weber, W. (2014). Are Hofstede's Dimensions Valid? A Test for Measurement Invariance of Uncertainty Avoidance. *Interculture Journal: Online*, 13(22), 11-26.
- Schwartz, S. H. (2006). A Theory of Cultural Value Orientations: Explication and Applications. *Comparative Sociology*, 5(2/3), 137-182.
- Schwartz, S. H. (2008). *Cultural Value Orientations: Nature & Implications of National Differences*. Moscow: State University-Higher School of Economics

Press.

Travaglino, G. A., & Moon, C. (2020). *Explaining 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Nor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s of Cultural Orientations, Trust and Self-Conscious Emotions in the US, Italy, and South Korea*. Article Submitted for Publication, University of Kent.

<Abstract>

Does National Culture Matter to the Understanding of COVID-19 Pandemic?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Dimensions and
COVID-19 Cases

Lee, Sung-Ju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whether the different number of COVID-19 cases by each country worldwide can be effectively explained by national cultural differences. National cultural differences are measured using the results of the three existing large-scale comparative studies, namely Geert Hofstede's research on cultural dimensions, GLOBE project, and Shalom H. Schwartz's value orientation research. Th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as well as power distance dimension have robust relations with the number of COVID-19 cases.

Key Words : COVID-19, national culture, cultural dimension, Geert Hofstede, GLOBE project, Shalom H. Schwartz

*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명: 이성준(Lee, Sung-Jun)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E-mail: sungjun_lee@hotmail.com

논문 접수일: 2020.6.25. 논문심사 완료일: 2020.7.7.

수정원고 접수일: 2020.7.11. 게재 확정일: 2020.7.11.